

고단한 현실 위로 '위안'... 불황에 투자서 외면

흥미로운 곤충 이야기

김목 작가, 장편동화 '붕붕이와...' 펴내



“내 주변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을 것만 같은 이야기”, “코로나 시국을 이 책 덕분에 잘 건너가고 있는 것 같다”, “편의점이라는 소재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

책을 읽은 독자들의 리뷰는 대동소이하다. 소설도 소설이지만 리뷰에 먼저 공감이 가는 것은 그만큼 작품이 주는 울림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은 공감을 준다. 소설이 본질적으로 허구의 산물이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떤 이야기든 현실의 토대를 벗어날 수는 없다. 사람살이를 다룬 서사가 어느 날 문득 하늘에서 푹 떨어지거나, 기상천외한 상상으로만 구조화되는 경우는 없다. 소설을 정의할 때 곧잘 언급되는 ‘소설은 현실의 반영’이라는 명제에 부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올해 독자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소설로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 뽑혔다.

예스24와 교보문고가 발표한 올해의 베스트셀러 및 결산에 따르면 ‘불편한 편의점’은 1위에 올랐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맞물린 대내외적인 요인이 크다. 현실의 고단함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소설 이야기에 투영된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예스 24·교보문고 올해의 베스트셀러 트렌드·결산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불편한 편의점’... 키워드는 ‘낭중지추’

‘베스트셀러 톱10’에 소설 절반 차지... 경제·경영서 판매 저조

삶과 이웃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인기를 끄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특히 동네의 편의점을 모티브로 삶의 회로 에라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불편한 편의점’은 친근함을 준다. 소설 속 편의점을 현실의 어느 동네에 옮겨봐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서사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좋은 이야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 작품이다.

이밖에 한국소설은 올해 강세를 보였다. 예스24에 따르면 김영하가 9년 만에 펴낸 장편 ‘자별인사’, 영웅이 아닌 청년 안중근의 뜨거웠던 시간을 그린 김훈의 장편 ‘하일빈’, 빨치산의 아버지가 헤쳐온 격랑의 역사를 그린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도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에는 환상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한 ‘달라구트 꿈 백화점’,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등의 판타지 소설이 인기를 끌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우리의 정서와 역사를 매개로 한 이야기들이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외국소설로는 ‘파친코’가 1위를 차지했다. 저자인 이민진 작가는 ‘한국 독자들에게’ 중에서 “내게 ‘한국인’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가치가 있는 이들이다. 나는 가능한 한 오래 한국인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향을 시대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기계발서를 찾는 독자들도 늘었다. 예스24의 자기계발 분야 1, 2위는 ‘역행자’와 ‘웰빙킹’이 올랐다. 전자는 가난한 환경에서 부화 행복을 거머쥔 저자 자칭의 인생 이야기를 담았으며 후자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영국 상위 0.1% 부자가 된 켈리 최의 부에 대한 관점을 다뤘다.

영화와 드라마 대본집도 2030을 중심으로 선택을 받았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오리지널 각본집 ‘헤어질 결심 각본’, 울 초 인기리 방영됐던 드라마 ‘그 해 우리는’ 대본집과 화제의 웹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시맨틱 에러 포토에세이’, ‘시맨틱 에러 대본집’

이 마니아층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교보문고가 선정한 올해의 키워드는 ‘낭중지추’ (囊中之難)로 집약된다.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국 작가들의 저력을 확인하는 해라는 의미로, K컬처가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 기존에 주목받지 못한 작가의 작품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다는 점을 대변한다. 정보라 작가와 박상영 작가가 세계 3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맨부커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성과를 아우르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보문고의 종합 베스트셀러에는 상위권 10위에 소설이 모두 5종이 포함됐다. 100위권 내에서도 27종을 가장 많아 ‘서사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해였다. 재테크 분야는 그다지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 시차를 두고 재테크 도서는 하락했으며 경제 경영 분야 중수는 지난해에 비해 급감했다.

인문 분야에서 시대의 지성 고(故) 이여령의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 1위에 올랐다. 이여령 선생이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로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줬다.

그림책 작가 이수지의 ‘여름이 온다’는 음악을 들으며 그림으로 느껴 보는 싱그러움 여름 이야기로 주목을 받았다. 책은 2022년 볼로냐 가치상 픽션부문을 수상해 화제가 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의 확장으로 별과 같은 곤충이 점차 지취를 감추고 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꿀벌의 실종은 환경 훼손에서 비롯됐다. 꿀벌은 자연생태계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도시와 농촌을 떠나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꿀벌을 비롯해 곤충의 생태를 아름다운 동화로 형상화한 작품이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야동문학인회 회장인 김목 동화작가가 펴낸 장편 동화 ‘붕붕이와 친구들의 모인’ (속속문고)이 그것.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일벌 붕붕이는 부지런히 날아다닌다. 조팝나무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거미줄에 걸린 일벌 친구를 구하기도 한다. 또한 못생긴 번데기가 호랑나비로 탄생하는 과정도 가만히 지켜보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무지개나비와 생김새가 비슷한 태극나비가 사람들에게 포획됐다는 소식을 접한다. 붕붕이는 태극나비를 구할 묘안을 짜기 시작한다. 과연 이들은 태극나비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까?

작품은 도시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벌과 나비 등을 모티브로 이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곤충을 뿐 아니라 꽃과 나무도 등장해 서로 힘을 합쳐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는 과정 등도 보여준다.

동화라는 이야기 안에는 재미있는 벌과 곤충에 대한 정보 등도 담겨 있다. 여왕벌이 알을 낳은 후 21일부터 일벌이 되는 과정과 나비는 꿀벌보다 오랫동안 번데기 상태로 있다가 겹질을 벗고 나비가 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또한 일벌이 생애를 마칠 때쯤이면 벌통에서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도 이채롭다. 다른 천적들에게 벌통의 위치를 들리지 않으려는 자기 희생과 배려의 모습이다.

한편 김목 작가는 “자연이 상처를 입으면 우리 인간도 상처를 입고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도 살 곳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한편 김 작가는 1975년 소년중앙 문학상 동화,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로 등단했다. 그동안 ‘이순신 길을 걷는 아이들’, ‘도깨비 장난일까?’ 등 다수의 동화책을 출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탈춤’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47건 새로 등재...2008년부터 총 678건

올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을 비롯한 총 47건이 새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17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39건, 긴급보호목록 4건, 모범사례 4건 등 총 47건이 목록에 등재됐다.

이에 따라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시작한 이후 각 목록에 이름을 올린 유산은 총 678건이 됐다. 우리 탈춤도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세계적 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탈춤의 등재를 결정하면서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라며 “각 지역의 문화 정체성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북한의 ‘평양랭면 풍습’, 중국의 ‘전통 차 가공기법 및 관련 사회적 관행’, 프랑스의 ‘바게트빵 문화와 장인의 노하우’ 등이 새로 등재됐다.

다음 회의는 내년 12월 4~9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수도 가보로네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장(醬) 담그기’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전통 장 문화’를 차기 대표목록 등재 신청대상으로 신청한 바 있다. 등재 여부는 2024년에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우리 가락으로 신명나는 연말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송년음악회 ‘개세 지제’를 15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연다.

관현악단의 제 132회 정기연주회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당대에 뛰어난 기능을 갖춘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휘에는 한상일 상임지휘자가, 사회에는 김산옥이 참여한다.

무대에는 정윤해가 가야금을 연주하고 주 소연이 판소리를 선보이며 통소합주에는 최민, 김형석, 박기진, 정용기가 남도민요 노래에는 이난초, 김선이, 박지윤, 전지혜 등이 함께한다.

공연의 막은 가야금 협주곡 ‘강태종류 가야금 산조’로 연다. 곡은 막아내기, 놀러내기 등 어려운 기교가 많으며 복잡하고 불규칙적, 옛 박의 가락을 띠고 있다.

이어 김선과 김선제가 편곡한 남도민요 ‘육자배기’를 선보인다. ‘육자배기’는 본래 전남에서 나무꾼들의 소리로 불렸던 향토 민요로 18세기 현재의 곡 모양을 갖추게 됐다.

다음으로 최민과 김형석, 박기진, 정용기가 함경도 지역 민요 함경도 애원성 ‘북청사자놀이’를 연주한다. 또 최민의 통소 연주와 국악 관현악단이 함께하는 통소협주곡 ‘만파식적’의 노래를 펼쳐보인다. 곡은 나라의 모든 격



광개토 제주예술단의 공연 모습.

정과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전설의 대나무 피리를 상징하는 만파식적 설화를 바탕으로 작곡됐다.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일 후 협주곡 ‘향’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사물놀

이 협주곡 ‘신모듬 3악장-놀이’를 광개토 제주예술단의 무대로 막을 내린다. 공연은 90분간 진행되며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R석 2만 원, A석 1만 원. /김다인 기자 kdi@

★ 출시 기념 20% 할인 한정판에 ★

“남도맛기행” 먹거리 굿즈 출시



구매문의 (주)더킹핀 070-4238-6768

달콤주주
GWANGJU · NAJU

광주와 나주의 디저트로 하루를 달콤하게 시작

13,000원
10,400원

담술목주
DAMYANG · MOKPO

담양과 목포를 담은 한 잔으로 피로를 날리며 하루를 마무리

15,000원
12,000원

01. 광주의 오월 이야기를 담은 우리밀 오월쿠키 | 02. 나주의 쌀과 배로 건강하게 만든 나주 배쌀빵 | 01. 담양 대일솔이 들어간 약주 | 02. 목포 앞바다에서 잡아 말린 수제 쥐포 | 03. 청정 전남 바다의 김으로 만든 아몬드김스낵